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태신자전도 · 테마전도주일 · 70인전도대

새 천년을 전도 열기로 감싼다

새 천년 들어 교회 안팎으로 전도 열기가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태신자 전도와 70인 전도대, 테마전도주일 등 전도를 향한 교회의 노력이 최근 들어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최근 태신자전도와 70인 전도대 훈련을 연중 지속하는 한편 테마전도주일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태신자전도와 70인전도대는 사명자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활동이었다. 그러나 새 성전 시대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인식이 각별해지면서 올해부터는 이들 활동이 상시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태신자카드의 접수도 연중 계속되고 있다. 태신자카드를 작성 후 헌금함 또는 사무국과 교구 목사를 통해 접수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된다. <옆 표는 16일(주일)까지 접수된 1차 태신자 명단>

또 ‘테마전도주일’ 행사도 매월 전개되고 있다. 테마전도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미리 정한 테마에 따라 믿지 않는 성도들을 한 사람씩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다. 이에 따라 오늘은 가장 친한 친구 데려오기 행사가 열리며 다음 달엔 옆집 사람 데려오기 테마가 준비되어 있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도 1차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이종윤	이필우	유명석	김인순 음해경 신정순	성준경	김준성	강재자	강영권
정운돈	김기환		마호영 홍성원	신용식	김달철	김명심	박석홍 김금옥
고경선	이철수 이철승	김병용	김현세	윤찬오	윤종선	김성임	김평준 김미숙
이규정	한번은	김복순	서성주 김성은 서송희	이기숙	이완록 이기현 이기수	왕경래	박승민
지혜영	연미자 정미애		서수희		이기성	이남복	김덕수 하회영
김영심	편상범 박경희 이합숙	강재자	조순애 이춘옥 손경자	이복규	송영민 고성운	임송자	김영환
	이문숙	김현주	김대용 김평순 이상근	이완형	최인원	조선영	김진형 이정득
배영애	송휴섭	김현주	박근자	장낙희	김동찬 김동욱	조경옥	홍동기 조선행
원복순	이정옥 최희숙	차복녀	이명석 조연성	전수자	친구 큰이들과 작은이들	최이영	김형진 이본심
주경자	이종훈 박원순 고화자	홍성주	서신석	정현숙	김춘원 송원희 사양순	한명순	김재승 김주연 한애라
	진광수	이미리	심미선 이신지		황선자		경민 조광덕 정지영
최난수	최진철 최진석	최정숙	박용목 채영이 박혜원	이형희	김기철 형소남 이석하		정용현 윤명자 배정자
정연택	김의식 전인재	권장환	박광원 박성원	조선영	정금자 김진봉 유병숙		시은 이옥희 최윤희
강해신	송기천 김치업 송금중	김성준	김용민		김주탁	한정아	김금자 이금순 김명희
김병숙	김명중 강명식	김성철	김인호	최경서	김영택 최팔길		노명심 정호정 김영남
김태기	박영웅 여수혜 조상태	김신영	이홍순	오정수	한정근 김태순 문기석		차성체 김진락 최사규
김해자	서주이	박연순	이우금 박종태 임동춘		박영순 박무서 김연순	무명	최병철 김영희
하영수	최병호 안중예 최병권		박기수 윤무용	강두영		무명	김동열
	문금복	서창원	홍창성 김임중 김종철				

2000년도 태신자 명단은 다음 호에 계속 게재됩니다.

서문석 장로 신임사무국장에



그동안 공석 중이던 사무국장 자리에 서문석 장로가 임명되었다.

서 장로는 인천교대를 졸업한 후 교직을 거쳐 지난 25년 간 서울시 공무원

으로 봉직하신 행정전문가다. 서 장로는 2월 1일자로 우리 교회 사무국장직을 맡게 된다.

한편 서 장로는 원활한 사무행정 집행을 위해 16일자로 사무국장직을 휴무했다.

가족으로는 한춘홍 권사와의 사이에 2남 1녀가 있다.

성경통독사경회 접수중

성경통독사경회가 설 연휴인 4일(금)과 5일(토) 3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첫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둘째날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읽게 된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여하면 신약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사경회는 낭독자가 앞에서 성경을 읽는 동안 참가자들은 눈으로 본문을 따라 읽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읽기에 편한 성경과 필기구, 색연필 등을 준비하면 된다.

회비는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하여 1만원이다. 참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

스데반회 특별기도회

스데반회에서는 28일(금), 29일(토) 1박 2일 간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이 기도회에서는 이종윤 목사의 특강이 있으며 고경선 목사의 지도 아래 “새 성전시대의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건축위원장인 오정수 장로와의 시간을 갖고 성전건축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이 기도회에는 안수집사 부부가 함께 참석하게 된다.

이사야 강해

메시아 통치

이사야 32장 1-8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과 교훈을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종합된 내용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헬라어는 "다스린다, 통치한다"의 뜻입니다. 본 장은 장차 올 메시아 시대의 모형입니다.

1. 메시아 왕국의 특징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의와 공평이 있는 나라입니다. 공평은 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의가 지배할 때 공평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나라는 의의 나라며 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의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한 왕' (1절)은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말하지만 선지자가 실제로 말한 것은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메시아입니다(창 18:25).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시 7:11). 하나님의 재판은 확실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의가 편만하고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왜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까?

첫째, 모든 형태의 도덕적 악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엄하게 정죄되므로 성도는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식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마 23:13, 7:23, 15:19-20).

둘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 엄한 규례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고전 5:7, 5:13, 5:11, 5:5, 딤후 1:20).

셋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계 20:12-13).

2. 메시아와 성도의 관계

이 세상 임금들은 흔히 백성을 압제하는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과 같습니다. 메시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십니다(2절).

하나님의 진노가 광풍같이 밀려올 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광풍을 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밀려올 때 그 품에 숨을 수 있습니다(시 31:20).

또한 메시아는 폭우, 곧 죄를 가리는 곳이 되십니다. 메시아는 우리 죄를 가리우시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며 벌거벗은 수

을 안하며 말에 소금을 쳐서 적당하게 간이 맞는 말, 곧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편 메시아가 다스리시게 되면 이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5절). 사회가 혼란해지면 어리석고 궤환한 자가 득세하게 됩니다. 궤환이란 말에는 무기, 도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궤환한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였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뜻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중운 목사

치를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계 13:8). 죄는 오직 예수님께서서만 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생명의 강이십니다. 강물은 사막에서 생명을 소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기쁨의 근원이 되고 기운을 회복시켜 줍니다(요 7:37-38, 요 4:14).

메시아는 사막한 땅에 큰 그늘이 되십니다. 세상은 항상 곤비한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땅은 마르고 초목은 시드는 세상에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고전 10:4). 우리는 이 반석 아래서 안식과 새롭음과 신선함과 보호함을 받게 되고 여기서 힘과 위로와 용기와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내적 갈등과 외적 핍박으로 곤비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안식처며 쉼터입니다.

3. 메시아 왕국의 내용

메시아가 다스리시게 되면 우리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어서 사실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3절).

또한 메시아가 다스리시게 되면 조급한 자, 곧 미련한 자는 지식을 깨닫고 행동에 변화가 오며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져서 말의 시정을 받습니다(4절). 이것은 지혜는 있으나 용기가 없던 자들이 할 말을 하고 안할 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양민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나발의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삼상 25장).

의로운 왕은 어리석고 궤환한 자를 등용하지 않습니다(6-7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말하고 그 속에 불의를 품어 간사하게 행하며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께도 대적자가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가난한 자의 양식까지 빼앗아 가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 버립니다.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므로 계획이 악하여 거짓말로 악자를 치며 빈핍한 자가 옳은 말을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존귀한 자, 곧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언어로 출세하지 않고 존귀한 봉사로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있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득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미래의 것이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우리 부서는

전도위원회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한 해로

최종사(장로, 전도위원장)

2000년은 우리 서울교회에 큰 비전과 소망을 주신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천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시작을 은혜와 사랑으로 출발하도록 하셨으니 이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한 해는 특별하신 하나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우리 서울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이 분명한데 이를 위해 우리들의 각오와 준비가 주님께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는 새 예배당을 지어 입당하는 새 예배당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이에 걸맞은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먼저 전도회를 재편하여 효율적인 전도회 운영과 복음 확장을 위한 적극적 전도에 입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 이상 대신자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다가오는 새 성전시대에 맞는 성숙한 교회로 면모를 일신하는데 힘을 다하며 새 신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전도회로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둘째, 70인 전도대를 통한 전도특공대 훈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전 성도에게 전도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여 언제 어디서

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테마 전도를 통해 일 년 열두 달 동안 전도 대상을 변화있게 찾을 것입니다. 먼 데서뿐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인근에서 새 신자를 찾아 전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넷째, 놓여준 지원 교회를 통하여 대외 전도와 복음 확장에 진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회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전도위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는 전도회로 긍정적 사고를 갖고 희생도 감수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합니다."

장년부

큰 솔을 걸고 영혼에 새 힘을 얻고자

황정욱(집사, 장년부 부감)

우리 장년부는 올해 "큰 솔을 걸자"(왕하 4:38)라는 표어를 걸고 새 천년의 원년을 출발하려 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풍성하여 지친 영혼에 충만한 힘을 불어넣는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장년부에 출석하시던 여러 권사님이 이제 나이대로 소망부에 가게 되셔서 빈 자리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도 했습니다만 새해 첫 주

새로이 집사님 10여 분이 오셔서 올 한 해는 젊은 장년부로 거듭 성장하리라는 기대가 큼니다.

주일 2부 예배가 마친 후 오후 12시 40분부터 1층 예배실에서 계속되는 장년부 성경공부를 통해 김영한 목사님의 주옥같은 말씀을 듣다 보면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은 바울서신을 배우고 있는데 말씀을 천천히 경청하다 보면 실제 바울 사도를 옆에서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느낌이 듭니다.

새로 오신 이번생 부장 장로님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장년부를 은혜가 풍성한 곳,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최상의 교육 부서로 만들고자 벌써부터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백전불패의 군인 정신과 성령충만한 사도적 몸가짐을 겸비한 장로님을 뵈면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상하신 부감 권사님, 반주를 맡아 해 주시는 권사님,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 차와 간식을 준비해 주시며 봉사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년부 내부에 굳게 다져진 보석이요 자랑입니다.

지난해 교사 부족으로 어려움도 적지 않았으나 새로운 희망도 큼니다. 임원과 교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교사 연합은 물론 전도 의욕이 불타고 있어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충만함으로 금년 목표 장년부 회원 100명은 순식간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장년부에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고 모여서 행복하고 나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 즐거운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는 가운데 매 주일 영혼에 새 힘을 얻으며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조선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지난 주 UN이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동포 7명이 강제 송환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탈북동포들이 UN으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아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권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와 서명 운동이 계속되어야 함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탈북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을 설립할 것을 UN에 청원하는 탈북난민 UN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 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우리 교회는

2차 목표인 30만 명을 훨씬 초과한 456,273 명의 서명을 받아 운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병무(장로, 탈북동포UN청원 서울교회 서명본부장)

운동본부에 의하면 국내외를 합쳐 약 3백만 명이 서명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서명운동에 계속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새로이 탄생한 만부장 세 분(함송현 권사, 이학주 집사, 한명순 집사)이 오늘 찬양예배시 기념패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을 탈출하여 헤매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있을 곳도 없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흑한과 기아 속에서 이국 땅을 방황하고 있을 탈북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 운동에 이웃과 함께 참여합시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구모임을 마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반가움을 나누노라니

평소 이웃과 가정, 직장에서 잔잔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과 섬김의 작은 예수로써 모범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장로님 가정의 모습도 비울 수 있었

특별히 사랑하고픈 것입니다. 부부가 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가정이 많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9교구 식구들은 교회 건축을 위하여 전도에 앞장서며 협력하여 신을 이루는 9교구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최영란(집사, 9교구 간사)

새 천년, 새 하늘,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6교구 식구들이 연합과 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6교구는 목동, 강서, 영등포, 구로, 광명, 부천, 인천, 안산, 시화 등 지리적으로 서쪽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36명의 다락방 식구들이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방화에 있는 노송성 장로님 댁에 모였습니다. 6월에 있을 다락방 소개를 위한 찬양곡을 플라 연습하며 고경선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습니다.

비록 몸은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달려가고 싶은 우리 6교구 식구들이 이제 모든 고정 관념을 깨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곳에서도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김영란(집사, 6교구)

부끄럽게도 몇 년 만에 가져본 교구모임. 그 주어진 시간 속에 기다림과 만남이 서로 어울려 주일마다 뵈는 것과는 또다른 더욱 반가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앞장서서 밀어주시며 격려하시는 권사님들. 든든하게 뒤에서 기둥이 되어 주시는 남자 집사님들, 막내라고 열심히 따라 일하시겠다는 젊으신 집사님... 새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종윤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모퉁잇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다락방과 가족 소개를 하는 시간에는 각자의 짝을 찾아가시는 모습. 이것이 우리 교구가

2부 순서로 다락방 식구들 소개와 고 목사님 생일축하에 이은 지혜영 전도사님과의 화답송, 김소연의 찬양과 권사님들의 울동과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화합과 일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지역장으로 계속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래 서울교회 교인이 될 이웃 주민과 회사 직원 부인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100교회운동 결연현황

1월 16일 현재(다음호에 계속)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63	금선교회	송종운(목)	청년부 교사
64	금성교회	김상두(목)	둔촌성내다락방
65	방축교회	문웅시(목)	제2권사회
66	사정리교회	윤광열(목)	제2권사회
67	성법교회	김창연(목)	스데반회
68	신성교회	오준석(전)	가브리엘찬양대
69	오마교회	최기출(목)	박철훈·이경희
70	오전교회	김기식(목)	신용식
71	만년교회	윤재성(목)	정무균
72	진도주안교회	주경원(전)	김규태·박미혜
73	참빛교회	김선남(목)	노영숙
74	초전교회		임광식
75	필암교회	이세규(목)	박두호·한성욱
76	화순청풍교회	선남규(전)	김재술
77	황향교회	한덕순(전)	안인호·이명신
78	죽림교회	이연우(목)	김명심의 19명
79	송천교회	우재호(목)	조철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동정**
- * 이종윤牧사는 25일(화) 한기총 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기독교교도소추진 이사회를 소집한다. 27일(목)과 28일(금)엔 송실대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강연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한길동 집사·박영옥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유아부는 24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태신자전도의 결실을 위해
2. 성경통독사경회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3. 농어촌 100교회운동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